



불자가수 김흥욱

“2002년 월드컵 한국서” 노래·방송 홍보 분주

지난달 말 불자가수회 제4기 회장에 선출된 김흥욱씨가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를 위한 축구가요 '2002년 월드컵 코리아' 제작하고, 불자들이 구성된 유치지원단을 결성하는 등 월드컵 한국유치 막바지 홍보작업에 한창이다.

다양으로 있는 연예인 회오리 축구팀의 회원인 가수 이승철, 방실이, 탤런트 이병철 씨 등과 함께 올림픽 예산에 참가, 한국축구에 대한 열띤 응원과 홍보를 펼칠 계획.

불자가수회 회장 외에 현재 한국기아도움기구 홍보실장을 맡아 바쁜 시간속에서도 김흥욱씨는 동산불교교양대학을 졸업, 무진장스님으로부터 운봉(雲峰)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2002년 월드컵 유치경쟁국인 일본이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칭타칭 '가요계의 차범근, 축구계의 김흥욱'이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월드컵 홍보유치위원 김씨는 지난해 이미 '가자 월드컵 코리아'를 발표해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건우 작사, 김진홍 작곡의 새 노래 '2002년 월드컵 코리아'는 쉽고 경쾌한 행진곡풍의 가사와 리듬으로 월드컵의 환희를 표현, 전 국민 누구나 가 부를 수 있는 국민가요가 될 것”이라는 김씨는 이 노래가 전 국민의 호응을 받아 월드컵 유치에 더욱 한마음이 되었으면 했다. 김씨는 오는 17일부터 텔레비전에서 열리는 96 아틀란타 올림픽 축구 최종예선에서 이 노래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흥욱씨는 “월드컵 한국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위해 오는 3월중순경 불자들로 2002년 월드컵 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조직적인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는 2천만 불자들의 뜨거운 참여와 부처님의 원력으로 꼭 성사될 것 같다는 김흥욱씨는 “축구공 하나로 21세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열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다.

또한 김흥욱씨는 자신이

이은자 기자

불교 TV 시사·오락물 늘려 '봄단장'

불교TV는 3월 개편을 맞아 방송시간을 연장(평일 12시간 30분, 토요일 14시간 30분, 일요일 15시간 30분)하고 교양, 오락, 토크쇼 등 다채로운 신설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프로그램은 먼저 시사토크 프로그램 'TV대중공식'(토요일 오후 12시 35분)가 관심을 끈다. 한주만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 그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움직이는 젊은 불교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꾸며낸 버라이어티 '현장쇼 스타를 찾아라'(토요일 11시 10분)는 MC로 유명한 미스코리아 이영현이 진행을 맡아 전국 사찰 불자들의 기와 신심을 겨루는 쇼프로그램이다.

또한 '돌양의 집나무'(토요일 오전 10시



개편과 함께 '김병조의 이야기쇼'로 새롭게 변모하는 김병조의 스타쇼 장면

방송시간 연장... '뜰앞의 잣나무' '스타를 찾아라' 등 신설

15분)가 불교계의 고승대덕 및 불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인생관 및 생활불교의 현장을 담아 보여 주며, '교계는 지금'(일요일 오전 9시)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여러 종단의 주요행사를 소개하는 한편 불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밖에 그동안 날마다 좋은날을 통해 방송됐던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코너가 '선재

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금,토요일 오후 1시 25분)로 독립채 향료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의 독특한 조리법을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김병조의 스타쇼가 본격 토크쇼로서의 면모를 다져 '김병조의 이야기쇼'(화요일 오후 1시 15분)로 새롭게 선을 보인다.

한편 불교TV는 오는 9일 창사 1주년을 맞아 영상포교 원년을 진단하는 내용의 특

집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불교TV 개국과 함께 변모된 불자들의 신행형태를 살펴보고 멀티미디어 시대 불교TV의 진로를 진단하는 '불교TV 2000'(9월 10시 10분)과 보다 심층적인 하이미디어 시대의 포교방향에 대해 진단하는 '특집리포트 뉴미디어 시대의 포교'(9월 12시 10분)등을 마련했다.

(은)



김흥욱



김흥욱



김흥욱



김흥욱

방송 진행자 새인물 교체

BBS 일연스님 불교TV 이영현씨

봄을 맞아 각 방송사의 간판프로그램들이 진행자를 교체하고 상큼한 새 봄을 예고하고 나섰다.

BBS '무명을 밝히고'는 지난 1일부터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가 진행을 시작했으며 '경진공부'도 오는 11일부터 6개월간 (능엄경)강의를 일연스님(동화사 주지)이 펼치게 된다.

불교TV는 '일기쉬운 교리 강좌'에 11일부터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대승

불교를 주제로 3개월간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 불교TV 3월 신설프로그램인 '현장쇼! 스타를 찾아라'는 미스코리아 출신 MC 이영현씨가 진행을 맡게돼 벌써부터 생동감 넘치는 진행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EBS(교육방송)에도 불자탈렌트 여론계씨가 '만들어 불교'를 진행하고, 김청씨는 청소년 드라마 '우리는 Y엔'에 출연하고 있다.

인터뷰

“무보수로 노인 위로 공연 노래봉사로 회향합니다”

63세 할머니 가수 김안수 보살

남들은 정년퇴직하고 여생을 편히 보낼 나이에 60세에 가수로 나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할머니불자가 있다. 더구나 불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 다니며 위문공연을 자청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끄는 가수가 바로 김안수보살(63)이다.

두 아들과 네 손자를 둔 김보살은 지난 82년 '인생은 60부터 김안수 디스코타임'이란 노래 테이프를 취입,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 나이에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벌려고 가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지요.”

김보살은 데뷔 6개월만에 독집 디스크를 내고 지난해에는 유명한 원로 작곡가인 남국인씨에게 곡을 받아 '문대로 복대로' '올봄도 사랑' 등의 노래가 들어간 새 음반도 발표했다.

그동안 양로원 경로당 등 노인들

행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노래 불렀지만 공연료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같은 연배이어서인지 내가 노래하면 박수가 더 많이 나와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 둘러싸인 우리같은 노인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는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오죽 하였어요.”

지금까지 가 본 행사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곳은 93년 9월에 개최한 이북5도 실향민 위문잔치. 당시 북

녘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 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그의 노래 '한도 많은 통일이야'는 눈물을 자아내며 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사할린 귀국 교포들이 모여 사는 고령에서의 위문공연도 한민가 공연하고픈 마음이 들 정도로 측은함을 자아냈다고 한다. 26세때 무아를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 42



바느질 구멍가게 행사 미용실경영 등 안해본 고생이 없다는 김보살은 지금도 머리를 스스로 매만지고 옷도 동태문 시장에서 옷감을 지어 만들어 입을 만큼 알뜰하지만, 불우노인들에게 큰 돈은 보시못해도 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다.

“30여년 넘게 젊어 다녔어요. 불교노인시설에서 불려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어요.” 70세까지 노래부르겠다는 김안수보살은 봉사와 자비행으로 노년을 회향하고 싶어한다.

연락처(02)476-3233

이경숙 기자

불교영화 '우리' '카루나'

칸느영화제 출품

불교영화 두편이 세계 3대 영화제중의 하나인 제49회 칸느영화제에 도전한다.

주인공 유리의 40일간의 구도행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옮긴 영화 '우리'(감독 양은호)가 이미 칸느영화제에 출품을 마치고, 오는 16일 개봉되는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도 곧 출품할 예정이다.

이 두영화는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근원적 삶과 민족의 영원한 통일의 문제를 각각 그려내고 있어 영화계 출품과 그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칸느영화제는 오는 5월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린다.

불교TV 창사 1주년 기념식

불교TV는 창사 1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후 3시 불교TV 15층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불교TV의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로 성일스님(신흥사 주지), 이정부씨, 이계진씨, 김병조씨 등에게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웃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현대불교의 독자 한분 한분이 곧 진리의 수레바퀴입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2천만 불자의 자랑스런 대변인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면 가득 신행의 지침이 될 부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고통을 수행의 거름으로 바꿔 놓을 지혜와 용기야말로 현대불교의 변치 않는 메시지입니다.

이웃에 현대불교를 권하는 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현대불교를 권해 주시거나 법보시를 해 주신 분께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 1명이라도 권유하신 분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1명 권유시 : 본지 3개월 무료 구독권
- 2명 권유시 : 본지 6개월 무료 구독권
- 3명 권유시 : 본지 9개월 무료 구독권
- 4명 권유시 : 본지 12개월 무료 구독권

-구독 기간은 6개월, 1년 단위로 1명을 기준으로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께는 해당 기간만큼 구독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신문 받으실 분(구독 권유 □, 법보시 □)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성명	전화	연령
주소		

권유하신 분

성명	전화	현대불교 구독여부	이미 구독	구독하지 않음
주소		전화번호		

자르는 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본사 영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우편번호 110-170)

전화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